朝鮮日報

今日二面
發行所 京城府 朝鮮日報社
發行兼編輯人 金東成
印刷人 金炯元
購讀料金 一個月 八十錢 三個月 二圓三十錢 六個月 四圓五十錢 一個年 八圓四十錢
廣告料金 五號活字 每行 金壹圓 四號活字 每行 金壹圓五十錢

社說

悽慘한 洪水難을 當하야
周到한 救急이 先務

一

玄玄한 蒼天의 狂態이냐? 喪亡한우리 民族의 悲運이냐? 吾人이 엇지 즐기어 이런 感傷的 言句를 발할바이리오마는 『비가온다』『비가온다』하여도 이머지 支離하게도 퍼붓는 비가 어드의 잇섯스며 『洪水』『洪水』하여도 이번 洪水가튼 洪水가 어드의 잇섯스며 또 災難災難하여도 이런 悽慘 悲痛한 災難이 엇지 흔히 잇섯스라 지난 十二日頃에 漢江, 洛東江, 錦江, 榮山江 等 大江의 流域에 洪水가 漲溢氾濫하야 農作物 家屋 財貨 等의 莫大한 損失은 姑捨하고 또 濁流中에서 寃葬된 多數한 人命도 且置하고 오히려 無依無食한 數萬의 同胞가 隙明山巓에서 啼饑吟病하게 된 慘禍가 接踵到來하는 이때에 又復 狂暴한 注하는 猛雨는 科學者의 推測線을 넘어 前古未曾有의 新記錄을 超破하고 猖獗한 그 慘禍는 有心人의 感傷的 嗟嘆을 挑發치 안코는 마지 안는다

二

三十萬市民을 有한 大京城은 지금 窒息狀態에 잇다 外로는 鐵道 電信 郵便 電話 等의 通信交通이 함의 滅絶되고 內로는 電車, 電燈, 電話, 各工場의 動力 等 都市의 生脈이 一切 停止狀態에 잇게 되엿다 그리하야 今番 大洪水의 慘禍에 掩襲된 地域 및 狀況의 如何를 아즉 斷言키 不能하다 다만 測候所의 發表에 依하건대 亦是 各地 通信杜絶로 詳言키 難하나 大槪 低氣壓의 中心이 中部 東北 西鮮地方에 流動되고 잇서 南鮮地方의 降雨量는 稍少하다 하니 前度의 慘害를 被한 南鮮地方을 爲하여서는 不幸中 多幸이라 할것이나 水難의 慘禍가 全國化하게 된것은 事實上 不幸中 又不幸이라 아니할수 업는바이다 그런데 後日의 詳報를 接하기 前에는 그 程度의 如何를 推想할수 업스니 具體論은 詳細한 報道가 發表된 後에라야 바로소 立論케 될터임으로 爲先 目前에 當한 京城附近의 慘狀을 드러 말하려 한다

三

그러나 京城의 水難도 이미 지난 水難이 아니라 지금 目前에 時時刻刻으로 威脅을 느기는 中에 잇스니 損害額의 幾多와 來頭 生活問題 如何를 論할 時期가 아니다 方今에 雨勢가 쉬지 안코 또 狂奔하는 濁流의 勢가 도로혀 더욱 可恐할 狀態에 잇다 그럼으로 지금은 階級의 別도 民族의 差도도 [illegible] 업다 오즉 灼熱된 人間愛와 高貴한 犧牲的 精神으로써 危險한 境地에서 生命을 喪顧하는 人間同胞를 救出함이 同胞된 우리의 先務이며 救出된 그들 不幸의 天災를 만나 不幸에 우는 그들을 或은 食事와 衣服으로 或은 居處와 醫藥으로써 救護하는 것이 人間으로 우리의 다할바 實能이다

그런데 數日內 各方面 人士의 不眠不休로 하는 活動的 冒險的 救護는 자못 同胞愛의 高潮되여 잇승을 事實로 證明한바이라 하기로 한者이나 人間의 勢力과 物質의 힘은 限이 有限한지라 多數의 合力과 全體의 協同을 待치 안코는 救急의 目的이라도 達하기 어려운 것이니 有心 有力의 全市民의 總動員을 必要로 하는 所以가 여긔 잇다

四

市民이어 兄弟여! 聞하엿는가? 悲痛한 同胞의 悲鳴을 聽하엿는가 悽慘한 被難者의 實景을 보라! 麻浦 東幕 東西二村洞에 數千同胞와 新阿峴山의 數萬市民과 纛島, 新川, 汝矣島 等 全滅地에서 避難한 兄弟들의 老弱 婦女 病幼가 悲狀 啼呼하는 慘景을 人世에 災殃과 悲痛이 許多 重疊지 아니치 아니로되 엇지 이런 現象이 有하엿더뇨 悲慘할 바이라 實로 悲痛한 熱淚가 泫涕됨을 禁치 못하는 바이다 그럼으로 吾人은 今番 災難이 及한바 物資의 損害로 因한 生活上 打擊과 그에 對한 對策과 其他의 來頭問題를 討하기 前에 먼저 救急에 遺漏가 업시 周到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야 이에 爲政當局者 一般 市民 할것업시 同心戮力하야 人命의 存亡과 財產의 流失程度가 判明되기까지를 一指로 한 救濟事業에 對한 必要를 强調하야 두는 바이다

各團體의 救濟活動

饑饉救濟活動
대를나누어서

조선긔근구제회에서 칠십여명의사람이 모히여 시내에잇는 각단테와 련합하야각각 대를나누어가지고 활동하는중이라 함은 두보한바어니와 이제 그자세한것을보도하면

東幕 朴達成 許益煥 朴來源 金昌俊 鄭五晶 閔昌植 外十餘人
往十里 金章鉉 外十餘人
忠信 宋奉瑀 李奉伊
京城 許鐸 馬鳴 金潤
關 李輔 金錫伊 外十餘人

그리고다시삼대로 분하야시내로순회하며 동정금품을 모집하는중인바

第一隊 申泰楫 黃圭泰外三人
第二隊 洪寬植 邊仁玉外三人
第三隊 金顯大 楊在植外三人

이런뜻 여러방면으로 분대하야 활동을개시케되고보니 자연히 각대와 의사에련락을 취할필요가 잇승으로 통신반을두게되니

通信班 金東明 金章鉉

조선긔근구제회의 사무소인 시내수표정에 중앙부(中央部)를 두고 각대에게 식료공급이며 동정금모집등기타 만반의 중앙사무를 취급케하는바 씨명은다음과갓다더라

李潤麟 金環獄 成龍 金敏 金若水 徐廷禧 裵

갈돕生도

고학생갈돕회에서도 회원을 파송하야 조선긔근구제회와 협력하는중

女子團體

조선녀성동우회(朝鮮女性同友會)경성녀자청년동맹(京城女子靑年同盟)에서도 조선긔근구제회와 협력하야 의연금도 거두며 식사공급을 하는중이더라

侍天靑年

시내시텬교청년회에서도 출동하야 조선긔근구제회와 협력하기로하고 이미 구제방일천오백개를가지고 참가하엿다더라

內修團도出動

시내경운동에잇는 텬도교 내수단에서 조선긔근구제회에 금십원을 긔부하는동시에 로력이라도 내일것이니 어듸에던지 소용되는대로 배치해 달라하엿다더라

宗親靑年活動
리재민구제에착수

권주리씨종중의 종친청년회(宗[illegible]

衡平中央總部
리재구호에대활동

시내와동동에 잇는 조선형평사중앙총부에서는 신수철리(新水鐵里)에잇는 리재민 일천이백명에게 십구일저녁밥을 공급하는외에 공덕리에잇는 리재민에게도 식사를공급케되엿다하며 다시 동형평사에서는 삼대로 나누어 구호에노력하는중이라 하며 조선긔근구제회와 협력하야 호별방문을하야 동정금품을 거드려다가 경찰당국의 금지로 부득이 중지케되엿다더라

(○○靑年會)에서는 리재민구호에 착수하기로 하야 홍은권임외사를조빙하야 순회진료에 종사하기도하며 혹은금품으로도 응가도하리라더라

美化靑年出動

시내 종로오뎡목에잇는 미화청년회(美化靑年會)에서는 조선긔근구제회와 협력하야 리재민구호에 로력코저 조선긔근구제회에 참가를 원하고 이미출동하엿다더라

救世軍育兒홈
구제에종사중

구세군육아홈(救世軍育兒홈)에서는 공덕리방면 리재민 약삼백명에대하야 쌀과의복과 채소등속을 분배하야 구제에종사중

金醫師施療
왕십리구호소에

영제병원(榮濟病院)의사 김두영(金斗榮)씨는 간호부를 대동하고 왕십리본사구호소에 출장하야 십구일오전열시부터 리재민병자에게 시료를하여준다

漢醫救療班
왕십리에나가는 의사삼씨결뎡됨

각디에산재한 리재민의 병을구호코저 한성의사회(漢城醫師會)에서 회의한결과 본사왕십리구호반에 출동하야 구호에 로력하는의사는 김용채(金容埰)리윤재(李潤載)방규환(方奎煥)삼씨로 되엿더라

普專校學生
구조에출동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학생 십이명은 십구일오후부터 시외왕십리(往十里)본사 구호부(救護部)에이르러 피난민을위하야 진력하는중이다

光活靑年會
청엽뎡에서 구호에진력

시내청엽뎡(靑葉町)에잇는 광활청년회(光活靑年會)에서는 룡산(龍山)방면의 리재민을 위하야 밤을새어가며 식사를데공하엿다는데 청엽뎡 중림동(中林洞) 봉래뎡(蓬萊町)등으로 동정금(同情金)을 모호는중이더라

檄文頒布禁止
이시긔에자미업다

조선긔근구제회에서는 금번홍수의범람이 심하야 죽게된 동포를 서로도웁고 사랑하는의미로 동정하자는 뜻의 격문의배포를 몰연 보대서에서 금지하엿다는대 리유는 지금이러한시긔에 그와가튼인쇄물을 일반에게 배포하는것은 불가하다는 리유이라더라

分隊募捐禁止
묵인한다하고금지

조선긔근구제회에서는 시내에 각대로나누어 수해구제 동정금품을 모집하든바 원래는 십팔일에 그근구제회 집행위원장 리종린

장마와자마석테 위생이더욱중요
온갓전염병이류행하기가 쉬우니의식주에더욱주의
본사촉탁김용채씨담

우리들은 어느때에든지 위생에대하야 특별히주의하여야 할것은 물론이나 하절에는 더욱주의하여야 할것입니다 더구나 근일과가티 장마비가 여러날을두고 계속하야 큰홍수가 나게되는때는 여러가지 전염병이 류행하기쉬웁습니다 경성은 더욱히 수도의 수원디를 홍수로인하야 일허바리고

음료수가 각일각으로 걸핍되여가는 금일인바 시민은 더욱위생에 각기특별히 주의하여야할것이오 이위생에 주의할에는 의, 식, 주(衣, 食, 住) 세가지 즉 거처하는곳, 입는의복, 먹는음식, 세가지에 특별히 주의하여야할것입니다

더러워지 는까닭에 위생에 해롭고 달하서쉬웁게 가만두며 또는몸이 차기가쉬움니다 이것을 일일히 들어말하면 데일몸에입는의복은 여름에는 습기에가장해로웁습니다 그럼으로 아모조록 엷은옷이나 거진옷을 그대로 입지안토록 할것이오 이부자리라도 습긔가 업는 정하고 간조한것이라야 합니다 더욱 근일가티 장마가 계속하면 옷이 비에 저즐긔회가 만코 그저진옷을 그대로 입기쉬운 까닭에 몸에대단히 해롭습니다 그럼으로 아모조록 저즌의복은 말리어입도록 하여야합니다 그리고또하나 주의할 것은

여름에는 밤이라도 더워를 못이기여 의복이나 이불을벗고 맨몸으로 자다가 병이나는일이 만습니다 이것도 주의하여야할것입니다

둘재는 음식 임니다 즉우리에게는 가장중요한 동시에 그만큼 더욱 주의하여야할것입니다 여름에 위장병(胃腸病)이 만히발생하는것은 이것으로 인함입니다 이러한 위장병에 걸리지안토록 하라면

아모조록 찬물을 그대로 만히 먹지말것이며 야채가튼것도 생으로 먹지말어야 할것이오 과실가튼것도 과히먹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폭음폭식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더욱히 근일과가티 수도물이 걸핍되야 할수업시 응물물이라도 먹게되는 경우에는 백반(白礬)을 약간풀어 넛는것이 조승니다 비록 호리한물이라도 백반을 일만분지일만 너흐면 더러운것이 가라안저 정해집니다

셋재는 거처하는곳입니다 이것으로말하면 여름이되면

우리나라 온돌에는 습긔가 차옴으로 기쉬운고로 각금 불을집혀서 간조하도록 할것이며 방안을 더욱히 장마중이나 장마가 끗난뒤에 주의할것은 뎐염병이 흔히 류행하게되는것입니다 즉 장질부사(腸窒扶斯) 호렬자(虎列刺) 적리(赤痢)가튼것이 류행하게되는 것입니다 이외가튼 뎐염병은 장마비를 그 긔회로삼아 먼디밧에잇든것이라도 다른디밧으로 곳옴마와서 뎐염되기 쉬울고로 한두사람이라도 그런뎐염병에 걸리게되면 바로 그병이 퍼저서 다른디밧에도 큰불행을 보는일이 만흠으로 아모조록 이상에말한것과가티 의, 식, 주 세가지에 특별히 주의하는동시에 만일 불행히 그러한병에 걸리는일이 잇더라도 그병이 다시 손뎰수업게 기우러지기전에 바로곳 의사에게 진찰을 밧는것이 조슴니다

傳染病이猖獗中
순화원으로속속수용

룡산텰도병원(鐵道病院)에서 진찰한환자 칠십륙명중에 여섭일명의 뎐염병환자를 발견하고 곧시순화병원(順化病院)에 수용하엿다는데 그 뎐염병은 리질(痢疾) 장질부사(腸窒扶斯) 성홍렬(猩紅熱)등이라더라(십구일총독부발표)

郵便貯金 非常拂
경성우편국에서 십구일부터한다

경성우편국에서는 십구일 부터 이십사일까지 엿새동안 우편저금의 비상불(非常拂)을 하기시작하엿다

鐵道各線水害狀況
아직전선상황을알수업다

십팔일오후열시 총독부에서 발표한 텰도수해는 다음과갓더라

京釜線=京城龍山間線路浸水 漢江第一、第二兩鐵橋間線路流失(龍山以南은通信杜絶로不明)

京義線=京城金村間浸水及破損箇所

新村=水色五哩間十尺 水色=陵谷六哩間八尺 陵谷=一山 一尺五寸 一山金村 築堤崩壞(汶山以北通信杜絶로不明)

京元線=東豆川、金谷間漢灘江橋梁落下(遞信局情報)

線路被害 冒險調査
하기로결뎡

텰도국(鐵道局)본부에서는 십구일오전에 협의한결과 텰도국공무(工務)운수(運輸)정보(情報)등부원수십명으로써 결사대(決死隊)를조직하야가지고 각선로(線路)고장(故障)을 도사하려가기로되엿다더라

郵便行囊停頓
아직도송할희망이업다

경성에오고가는우편물(郵便物)은 경부선경유(京釜線經由)의것은 십칠일부터 두절 상태에잇는데 지금 경부선경유의 우편행낭(郵便行囊)약삼십개가량이 쳐허잇고 그후십구일까지의분 약일천개는 대전우편국에 또 경의선(京義線)것은 개성국 평양국에 륙백개가 잇스며 경원선(京元線)것은 텰원(鐵原)에 오십개 원산에 약이백개를 보관하여잇는바 이것을 지금 원산부산선(元山釜山線)과 부산 목포 인천 진남포선과 조선우선회사배편에 보내고저 준비중인데 그런데도 아마 이삼일내로 운송되기 어려우리라더라

勞農露西亞의現狀 (三十六)
金俊淵

共產黨의來歷

露西亞共產黨의 前名은『볼쉐비키』이니 그는 露西亞社會民主勞働黨에서 發源하엿다 그럼으로 露西亞共產黨은 露西亞社會民主勞働黨이『민스크』市에서 第一回黨大會를 開하고 黨의名義로써 宣言書를 發表한 一千八百七十八年으로써 同黨의 紀元을 삼는다 革命的『맑스』主義를 그信條로한 社會民主勞働黨은 專制主義와 資本主義에 對抗하야 不斷의 努力으로써 政權을 獲得하며 또한便으로는 여러 自由主義者들과도 차호지 아니하면 아니되게되엿다 그러나 勿論 社會民主勞働黨內에서도 自由主義에 對하야 論爭이 만히 잇섯다 그러하다가 社會民主黨이 第二回黨大會를 開하엿슬때에 自由主義者 等과 勞働階級과 相容치 못할것이라는『레닌』一派와 自由主義者 등과의 協同을 主張하는『푸레하노프』『마르토프』派『마세리로드』一派의 사이에 大論爭을 誘起하게되엿다가 採決한結果 非協同派가 勝利를 엇게되엿다『레닌』等은 同黨大會에서 겨우 二票의 差로써 自己네들의 主張을 貫徹함을 得하엿다 그럼으로 非協同派는『볼쉐비키』(多數派)라고 부르게되고 協同派는『멘쉐비키』(少數派)라고 부르게되엿다 그리하야 非協同派에서『레닌』이 牛耳를 잡게되고 協同派에서는『마르토프』가 首領이 되게되엿다 一千九百七年에 英國『론돈』서 非協同派와 協同派가 合同하야 會議를 開催하엿슴는대 同會議席上에서 兩派는 根本的으로 分裂되고 말엇다 이때도 一千九百三年 第二回黨會와가티 兩派의 態度와 見解가 相違된것은 革命에 對한 黨의 主張에 卽 非協同派는 初志를 一貫코저하야 無產階級革命의 行을 主張함에 對하야 協同派는 純無產階級革命이 政治的 自由革命이 必要함으로 資本階級과의 妥協提携를 主張하엿다『볼쉐비키』는 어대까지던지 革命이엿는대『멘쉐비키』는 매우 妥協的 態度를 取하엿섯다 獨逸社會民主黨首領『베벨』을 首始하야 여러가지 西歐의 有力한 社會主義者들이 極力 兩派의 協同提携를 勸誘하엿지마는『레닌』은 服從치 아니하고 斷然히 兩派사이에 黑白을 分明하게 하엿다 그리하야 一千九百七年의 決心을 하얏다

『볼쉐비키』는 一千九百七年乃至十年間의 極端反動時代에 잇서서 가장 秩序잇게 退却하야 黨의 結束을 鞏固하게 하고 그核心을 鞏固하게 하야 크게 他日에 雄飛할 基礎的 工事를 遂行한것은 非協同派이엿섯다 彼等은 無產階級運動의 非合法的 形式과 合法的 모든『法律的으로 可能한 手段』을 然히 利用하는 巧妙한 戰術을 作하얏다 그리하야『볼쉐비키』는『皇帝의議會』에도 보내게되엿다 이에와가티하야 非協同派는 그 慘澹한 反動時代에 잇서서 잘 그『싹』을 保全하며 成長식히는데 多大한 便益을 어덧다

一千九百十四年에 帝國主義 最初의 世界大戰이 勃發됨에 際會하야 第二『인터내쇼날』은 아조 破壞하고말엇다 그러케 慘烈하게 不和를 主張하던 歐洲의 有名한 社會主義者들이 各其 各國의 愛國的 民族主義者에 降服해버렷나니 露西亞의『멘쉐비키』獨逸의『카우츠키』『쉬이데만』一派, 佛國의『룽게』派, 英國의『페비안』派及獨立勞働黨, 伊太利의『트라티』等, 다 그러치 아니한이 업섯다 이때를 當하야 홀로 松栢의 志操를 지킨 사람은 매우 少數엿다『볼쉐비키』가 無產階級의 反逆者들에게 對하야 그 無恥卑劣한 行動을 容恕하지 아니코 痛棒을 加한것은 露西亞의『볼쉐비키』가 잇슬뿐이엇다

一千九百十七年三月革命後에『멘쉐비키』는 社會革命黨과함께 資本階級을 支持하야『볼쉐비키』에 對抗하엿다 그러하엿스나 大多數의 革命的 無產大衆사이에서 리를 잡게 되엇다 一千九百十八年三月八日『모스크바』(莫斯科)에 開催된 第七回『볼쉐비키』黨會에서『볼쉐비키』는 實質上 共產主義를 標榜하는 者이오 또『맑스』時代에 存在하엿던『共產黨』과『맑스』의『共產黨宣言』을 紀念한다는 理由로써 黨名을『露西亞共產黨』이라고 改稱하엿다

白米供給을잘하고자 公設市에販賣所
표준시가를뎡하고그이상이면취톄를하게한다

총독부에서는 백미의 공급을 원활하게하고 일방으로 시가를 됴절키 위하야 륙군재고미(陸軍在庫米)중 필요한수량을 시내에 유수한 곡물업자로하여곰 림시 백미공급조합(臨時白米供給組合)을 조직식히게 한후 거긔에 불하하야 현재에잇는 우량외미(優良外米)를 섯거서 시내사개소(花園町公設市場、明治町公設市場、鐘路公設市場、南大門外穀物倉庫)에 판매소를 설치하야 렴가로 팔게하고 필요에 응하야 룡산에도 설치할예뎡이라는바 현재 경성의 재고외미는 삼천이백석가량으로서 그중에 조나흔것은 일승대금이 두등에 이십구전 일등에 이십전이며 재고속(在庫粟)은 일천사백석으로 두등에 이십사전 일등에 이십팔전이오 보통백미는 얼마나 잇는지 그수량은 분명치 못하나 상당히 만흘듯한대 두등에 사십오전 일등에 사십사전을 소매시세로 인정한후 그이상을 밧는자는 폭리(暴利)로 인하고 엄중히 취톄할터이오 그외에 재경미는 재작일 발표와가티 상당히 풍부함으로 련일 비가 오히려 게속된다하드래도 지구책을 강구할필요가 업더라(경무국발표)

水難義金
本社에온것

본사에 부탁한 리재 동정금품은 아래와갓더라

聖經學院寄宿舍一同	十圓八十四錢
李鍾奭	一百圓
李榮柱	五圓
朴世榮	十圓
金運商會	十圓
李鼎九	十圓
閔晟基	二十圓
李錫九	一百圓
全鎣弼	二百圓
閔忠植	二十圓
龍宇興醬油會社	福神漬二十貫
尹德榮	三百圓
朴勝萬	五圓
李逸雨	白米二叺
壽昌堂藥房 李喜豊	十圓
同	靈蘇丸一百包
勝洞禮拜堂	金五十七圓四十六錢 ▲純金簪壹個▲純銀簪參個▲純銀指環壹個▲銀側時計壹個
寬勳洞 信裕社	金五圓
寬勳洞 敬信楔	金五圓
俞鎭國	金五圓
普善楔、長和楔、共益楔、普益楔	白米一石
李愚璟	三圓
日丸魚市場 京城魚市場 一同	三十圓
大成精米所	白米一石

海員共濟同情
식사를데공

북선해원공제회(北鮮海員共濟會)에서는 왕십리재동포를 동정하야 사백인분의 식사를 데공하엿더라

朝鮮饑饉救濟
자마장으로

조선긔근구제회(朝鮮饑饉救濟會) 김홍작(金鴻爵)씨는 십구일오후네시에 다시 인명구조를 목뎍하고 김태용(金泰用) 리병두(李丙斗) 조긔간(曹基栞) 삼씨와함께 자마장리(雌馬場里)를 향하야 떠낫더라

羅世煥	五十圓
尹鍾榮	貳圓
勝洞禮拜堂	五十七圓四十六錢

閔泳徽氏同情
금천원또의연

데일회수재에 삼백원 일천에 또다시 륙백원의 동정금을 의연한 민영휘(閔泳徽)씨는 십구일에 다시 일천원을 의연하엿더라

十二名도生還
본사구호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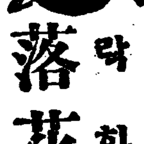
독도(纛島)수도국수원디(水源地)압헤서 배에 피난하엿던 피난민중 어른과 어린 아이합하야 열두명은 오늘아츰 왕십리역에 도착하엿는데 즉시본사구호소에 수용하엿더라

消火栓開放
(십구일오전열시)

수도물을 널리먹이고자 십팔일부터 수도물의 공급을 되도록 넓은범위에 미치게하고자 소화전(消火栓)을 모다 개방하엿다더라

電工一名溺死
뎐선수선중에

고양(高陽)방면에 출장하얏든 뎐신공부 두명중 조선인한명은 싸저죽고 일본인한명은 간신히 구조되얏다더라



落花 (락화)
바람 번역
一三九

『오! 가엽서라』

백수는 자긔딸이나 맛난듯이 이러케 중얼거리며 그옆으로 갓가이가라고 하엿다. 한쪽소녀는 자긔손가락사이로 이것을보고 자긔목숨을 빼앗으랴 하는 악한으로 원앗는지『아이고! 아이고!』하고 부르지즈며 몸을 웅크렷다

『이애이애 아저씨는 무서운사람이 아니여 너를 도아주라고 왓서 네아버지의동모야』

백수는 조고만소리로 이러케말하엿다. 한쪽소녀는 그제야 얼굴에서 손을떼며『응? 정말!』하고는 백수의얼굴을 들여다보랴

백수는 비로소 소녀의 얼굴을 똑똑히보앗다 그얼굴은 한업시 파리하야서 얼골빗까지 아조달다졋스나 그것은 확실히 금주이엇다

『오! 너아저씨를 몰으니 언젠지 아버지와가티 식물원압헤가서 과자를 수엇지 왜』하고 백수는 부르지젓다

이에 금주는 비로소 백수를 알아보는듯이 너무나 즐거움에 말도못하고 그가는팔을 내밀어서, 마치 아버지에게하듯이 백수의목에 매여달렷다

백수는 측연한눈물이 저서 『인제는 아저씨가 왓스니 갓가 아모려정도 업다오』

『그러면 아버지한테로 다려다 주세요?』

『오 다려다주고말고 다려다 주고말고』

그러자 자석량울은 백수의 손가락을 지지며 쉬지고 그다음은 또다시 캄캄한 어둠속에 잠겻다 백수는 잠간동안 자긔경우를 생각하얏다 이긔속에서 과연 엇더케 다리고 나갈가 자긔한몸이라도 어려울터인데 수족에 매달리는 이애가 잇서서는 아모리하여도 두리다가티 악한의 독한손에 목숨을 빼앗기고 말듯하얏다 생각하면 생각할사록 가슴이라고 텬디가 아득하야 그의눈에는 눈물이 솟아나왓다 그눈물이 어둠속으로 금주의손에 떠러젓는지 금주는

『아저씨가 울면 난 엇더케해요 아저씨도 나갈수 업서요?』하는 소리로

이말에 백수는 짐짓 용긔를 내어서 『아―니 아저씨가 왜울어 이제곳 나가게할터이니 내말대로하여라응』하고 명주실과가티 보드러운 그의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다시 식량을 쏘내라 하엿다

이때에 마츰 그들의 머리위 련뎡에서 악한의 말소리가 나며 이어서 련뎡문을 열랴고하는 소리가 낫다 이에 백수는 인제는 운명이 결단나는때라 생각하고 오기를 기다려보리라고 결심하엿다 그리하야 금주의귀에 입을대이고 『아모말도 하지말고 자는데하고 벽에 쓰러저잇거라 나는 죽은데하고 잇슬터이니』하고는 즉시 한가온대로가서 처음에 써러젓든자리에 밟다들어누어서 죽은데하엿다, 한쪽 조금잇다가 련뎡문이 열리고 줄달린 등불이 나려왓다

그등불은 백수의 얼굴에서 한자쯤되는데까지 나려와서 다시 이리저리 휘휘내둘리엇다 굴속을 죄다 살피여본후에 녀편네가 말하엿다

『저것보지 내말과가티 돈주머니도 숨이 끈첫구면』

그다음에는 사내가 말하엿다

『가령 숨이 안떠러젓다하더라도 이속에만 들어가면 버서나지 못하는 길이라도 동행이 만홀수록 조홀터이니 가티가도록 하야지』

그러면 또하나 이리가거와 가든거청아 또하나 이속으로 들어오는이가 잇는가하고 백수는 머리털보다도 더가늘게 눈을떠서 가만히 쳐다보앗다, 한쪽 먼저 등불을 나려트리듯이 또하나 나려트리는것은 거치런 부대쪽으로 싸흔사람이 엇다 사정업시 쌕쌕묵근것을 본즉 벌서 송장이 된듯십헛다 이것이 다음애 등불은 올라가고 또 쑥 캄캄하여젓다 그러고 련뎡을 다시 닫는소리가 나며 어둠에 쌔어지는것도 [illegible] 에게 장식이 못낫다는 마조막 종소리와가탓다 그것은 즉 이세상과 리이며 그의몸은 벌서 산대로 드러가 나국으로 간쉐음이엿다

이에 백수의 실망이 엇더하엿슬가 만일 악한이 나려오면 소아죽이고 다려나리다고 죽은데하고 잇던것이 악한들은 나려오지도 안음뿐 아니라 문에 무엇을 굴려 노키까지 한것이엇다 련뎡은 놉하서 아래에서는 도키히 손도 다치 안을것이어늘 그문에 무엇을 눌러 노키까지 하는것을 보면 이악한들의 조심이 매우 주밀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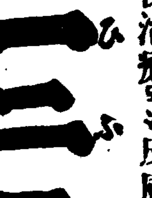
天一靈神丸 (천일령신환)
夏節에 須臾不可缺할 胃消藥!
旅行居家에 常備하야두시오
○主効 食滯·酒滯·腹痛·吐瀉·霍亂·氣鬱·消化不良·胃腸을 健實케함
○藥價 十丸入 金十錢 二十九入 金二十錢 五十九入 金五十錢
天一藥房

最新型 ヤンマー 양마 石油發動機

壹時間揚水量 五千石
農家各位에急告
排水에는 꼭「얌마ー파티각폼푸」를使用하시와 稻의安全을期하시오
排水用 灌漑用
(特約募集)(目錄進呈)
製造元 大阪 山岡發動機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電車通) 電話光化門長一二三六
特約店 京城府太平通二丁目 會我 釜山富平町一丁目 加藤鐵工所 大邱元町二丁目 松原商店

模範自動車運轉養成所
無經驗者를責任지고模範運轉士가되게함 入學案內書二錢切手封申込 京城[illegible] 朝鮮自動車研究所

土金特別高價買入
京城府明治町壹丁目
德力本店 京城出張所
電話本局 二一五四

外用常備藥
◆◆◆皮膚는항상……淸潔하게
病毒은 흔히 不潔에서 生함
心神이 爽快 治療되는 皮膚病藥

一二三 (ひふみ)
◆本劑는조금도쓰거나압푸지안이하고안으로드러가는것이업고少量의塗布로一切의皮膚病을一掃함니다
◆各地有名藥店에잇소
藥價 廿錢 卅錢 壹円
本舖 師岡天然堂
振替京城一二三二 電話本局七二

二百名一時溺死

광주섬리에서내려오는배가깨저서

天佑로生한八名의말

십구일오후 네시가량에이르러 뚝섬상류(上流)로부터 흘러내려오는중에 구조를부르는것을 발견한경비선이즉시출동하야 무사구조하엿는데 이제그들중의한사람인광주군동부면선리(廣州郡東部面船里)리준식(李俊植)(四)의말을들은즉 자긔네 여덟명은전부한동리사람인데 선리라하는곳도역시뚝섬이상의 외로운섬일뿐아니라 뚝섬과는약삼십리나떠러저잇는관계상비가오기시작한후부터는 교통과 통신이전혀끈첫던바 십팔일오전한시에이르러 사면으로흐르는 강물이드듸여넘처드러와서주민삼백이십명이 동리에잇든배세척에 난호어타고피난하엿스나배대일곳이업서 다만격류와함께떠서 흘러내려오던중 그중에약이백의다수를실은 배한척이물속에 선나무와 충돌하야세여지며이백명이일시에 물에빠젓는데 그중나(리준식)와다른일곱명만 겨우헤엄을처 흘러나리는집웅을잡어타고 나려오다가 이제구원을바든것이며 다른사람은모다 죽은모양인바 다른배두척도행위불명이라하더라

五名一時溺死

배를타고오다가뒤집히어

십팔일 오후네시반경에 룡산 부터 여섯명의리재민이 배를타고 신룡산방면으로 피난을가다 원뎡(龍山元町)삼뎡목방면으로 가우편국압부근에서배가뎐복되어 그중다섯명은마츰내물속으로드러가버리엇고 남어지 어린아이한명만 룡군의구호선에 구조되얏다는데 룡산방면에는 이와가튼 사망자가 만흔모양이라더라

◇바다로변한신구룡산일대 (회사표 [illegible]) (좌편)산룡산의동산병기창 [illegible]

本社員食料運搬

뚝섬리재민을위하야

본사구호반에서는십구일 정오 [illegible]와가 가지고 뚝섬으로향하얏는데 십이시경에 주먹밥삼백개를 가지고 뚝섬에 머물러잇는이에게 공급하려고사원국재진(鞠[illegible]) [illegible] (오후엿시십분[illegible])

鐵橋損害詳報

교량은무사한듯하다

(류실되엿느니안되엿느니하야 일반의의혹을 불게하든 한강텰도렬교(鐵道鐵橋)는예열매 이두렬교사이에잇든 렬도선로(線路)만전부류실되엇고 렬교는무사한듯하다더라(십팔일오후열시총독부발표)

慘澹한龍山驛

機關車貨車三百輛水洗

위험하게된조선배십여척

룡산역(龍山驛)에잇든 객차(客車)화차(貨車)긔관차(機關車)등에 [illegible] 화차배사십대가 화물창고(貨物倉庫)압헤서 물속에파무치어그림자도업시되고 긔관차륙십개도그와가티 [illegible] 화물창고다섯채는 [illegible] 부근일대에떠도라다니며 원뎡(元町)재목소(材木所)에잇든재목은 [illegible] 피난하지아니하는바 [illegible] 강제로으로 상륙시켯다더라

時間給水도中止

매일배수차로배급한다

수도는매일삼만립방척(三萬立方尺)식급수할예뎡이엇스나실상은사만오천립방척식을급수하엿는대 수원디(水源地)로부터거리가갓가운곳에서물을전부가저가서먼곳에는물이미처가지못하는끄로이십일부터는시간급수제도를중지하고그대신에배수차(配水車)에물을실고요소(要所)마다운반하여다노흔후각집으로하야금그곳에서물을가러가도록할터이더라(십구일총독부발표)

電燈電車恢復不遠

三十六尺만되면工事着手

이번호우로 십칠일밤에이래뎐력(電力)이 전부뎡지되야 가작하대경성젼례가암흑세계로 화하여젓슴으로 이래관계당국에서는이에복구에로력하든중 금강산뎐긔회사왕십리변뎐소(金剛山電氣會社往十里變電所)에서파견된수리반(修理班)의상황을 드르면수리공사는포천(抱川)까지는완성되엿고 포천만세교간(抱川萬歲橋間)은아모일업시 동하여지나만세교이쪽의 여러냇물이수세가너머넘처서 작업중지의 상태에잇스며 또경성뎐긔회사마포발뎐소(京城電氣會社麻浦發電所)의분은 륙호긔(六號機)한채만 남겨노코다른긔계는 모다십팔일밤일곱시에 침수되엿는데 지금이라도물이삼십륙척에만 감해지면 전긔륙호긔한아를사용할지라도불충분하나마뎐등은켜게 될모양이라하며더욱시내의 뎐차운뎐(電車運轉)도이제수심이삼십륙척되도록 감하야동력이 돌게되면뎐차(電車)을 복구시킨뒤 계속하야운뎐을 보게되리라고 경성뎐긔회사당국자는말하더라(대신국발표)

最後決死隊無事回還

新川蠶室에서二十六名救助

구제할사람은배로써전부구조하여가지고돌어왓다

뎨일 번에결사대가 신천(新川)잠실(蠶室)두곳주민 일백오십여명을구제하야도라왓다 함은 별항보도와갓거니와 [illegible] 두곳에 남어잇든 [illegible] 우리가신천 잠실두곳가 [illegible]

崇仁面三百餘戶

대학과원장운제조소에수용

숭인면동부리(崇仁面龍頭里)와 숭인면 [illegible] 청량리(淸凉里)까지 [illegible] 숭인구락부(崇仁俱樂部)와협력하야구호에노력중이라하며 [illegible] 십여명은 청량리대학과실에 수용하고 일백십여명은 룡두리원장(原藏)제조소(製造所)에 수용하얏다더라

東大門外爲先安心

차차감수되야침수가옥도나타난다

신설리(新設里)안감천(安甘川)의 물은어제밤 아래로흘러가사작하야오늘아침에는 안감천부근에잇는 침수가옥 [illegible] 팔십여호는다시나타나게 되엿는데 물은손해는불소하나 방금조사중이라하며 청량리와 [illegible] 부근도 감수되여 차차침수되엿던가옥이 나타나기시작하야 일반은안심하는중이라더라

鐵道局員家族救護

參謀長直接出動으로

렬선옥대이러다가필경 사다리로부인과소녀를

렬도국원(鐵道局員)의가족이 [illegible] 위험하게 되고와부로 잡혀가위험하다 [illegible] 공병(工兵)은 렬선 [illegible] 구원하려고 수수방관하엿스나 [illegible] 렬도국게사(技師) [illegible] 군사령부(軍司令部)로 [illegible] 마치여 경성련드러 어린아이와 녀자를 구원하야 경성역방면으로 보내엿다더라

신천작실

은나무엇참혹 [illegible] 하나어더봉수업는 [illegible] 구조하는 [illegible]

二千名과列車乘客

永登浦罹災民

렬도관사기타에수용하고 인천에서백미를공급하여

십구일 오전여섯시 오십륙분경 도가도못하는 규행렬차 승객일 [illegible] 배사십명과주민이천여명은렬도 관사(鐵道官舍)와 [illegible] 으로부터 [illegible] 인천으로부터 [illegible] 미십오석을보내엿다더라

羅災少年少女慰問

여러소년단톄가련합하야

십팔일 오전여섯시 오십륙분경 [illegible] 포(麻浦)방면으로 [illegible] 소년소녀칠여인식 [illegible] 소년소녀에게는 위문품으로 과자등을주엇다더라

廣州사람二十名

西氷庫에서救濟된

그네의말을드르면동부면선리의오십호는전멸

십칠일오후 [illegible] 광주군동부면선리(廣州郡東部面船里)사람으로 [illegible] 광주동부면선리리화장(廣州郡東部面) [illegible] 그네의 [illegible] 오십호는가옥 [illegible]

浸水漂流人姓名 廣州郡東部面船里

陳學連(五二) 李錫崇(二七) 李俊成(三二) 李俊鎬(二二) 朴善實(二二) 金[illegible] 池撤成(一四) 池命山(一七) 池命[illegible] 金[illegible] 金喜培(二二) [illegible] 李[illegible] 金喜玉女(二) 陳學汝(二三) 李[illegible] 李成[illegible] 同子[illegible] 李威俊(二七) 同妻(二二) 同長子 同二子(四) 同女(九) 其他

浸水總戶萬九百

룡산관내만삼천여호

東大門署管內	二、七八〇	七四〇
鍾路同		
西大門同	四、三〇〇	四三六
龍山同	七、〇〇〇	
計	一〇、九五六	

陸軍救護近萬名

◇人命救助 歩七八聯隊 四、八〇〇 歩七九聯隊 四、三〇〇 以上工兵共同

野砲隊 一〇〇 騎兵聯隊 一〇九

◇收容人員 七八聯隊 日本人 一、〇一三 朝鮮人 一、〇二六

七九聯隊 日本人 一九三 朝鮮人 三三二

計 一、二六〇

野砲 日本人 一六〇 朝鮮人 四〇〇

計 二〇〇

衛戍病院 日本人 一二〇 患者 日本人 一六九 朝鮮人 一六 計 八五

今後問題는食糧

纛島와雌馬塲의現狀

식료실고갓던배가돌어왓다

왕십리에서 오지못하고 뚝섬안에남어잇는 리재민의 긔근을구하고저 식료품을실고 십팔일밤새로 렴시반에 왕십리를출발한배가 도대와저아니함으로 구호반 본부에서는 그소식을알지코커다시 수색대를보내여 파견되엿다는 향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식료품은실고간배는 그동안약 십이시간이상을 험악한 풍랑을무릅쓰고각대로 물아다니면서 공급하고마츰내

식료품을

[illegible]

부근에는

떠나려오던 집웅 [illegible] 오십여채가수목(樹木)에걸려잇는데 집웅에는 개와 [illegible] 잇는것을보앗고 대사 새벽다섯시가 조금넘어서 뚝섬을떠나자 도중 그에너넘이 [illegible] 장리(雌馬場里)에까지 가서 [illegible] 라본즉 수삼호의 기와집이나라 [illegible] 남아잇는데 집웅에는 인히이만히 관부 흐리도업시 [illegible]

일백수십

여명이모혀잇는때 생명에는관계가 업스나 [illegible] 식료품이업서 몃칠식을굶고 거의 [illegible]

鐵路管內水害

십구일오전조사

십구일오전까지 경성철도관내의 수해는 아래와갓다

◇纛島 [illegible] ◇[illegible] ◇永登浦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最近水深

三十二尺一寸午後六時

纛島方面은當分不可測

[illegible] 구원하야 가자고 뉴사히본부에 도라왓는데이제그간수란디랍 의경과를 듯건데 왕십리를 출발하던 그때부터 감수가되기 시작한때엽으로 나리는 물결이 몹시 험악함으로 뚝파지척이뚝섬은약 네시간동안만에 도착한

[illegible] 가와집이나라 [illegible] 남아잇는데 집웅에는 인히이만히 잠실리 [illegible]

新川里갓던決死隊는

羅災民全部收容回還

일백오십사명을구제하여가지고왓다

위험한상태에잇는 신천리(新川里) 잠실리(蠶室里) 룡갓던 [illegible] 사대두척을십팔일오후팔시경에 왕십리여전울출발하야 광장리(廣場里)에도착한후 다시배세척을만드러가지고 그곳에 구하여가지고도라와서 경에 신천리에도착하야 위험을무릅쓰고 선천리 [illegible] 사랑은 일백오 [illegible] 구원하야 섭사명인바 결사대의이약이에의하면 [illegible] 연는데 그곳에남은것은 소두팔, 말열필이오, 집은모다물속에잠겨 나려가자는 안이엿더라(십구일오후두시반귀)

巡査가無故拔劍하야

十三歲小兒의腦後를猛打

발행매 [illegible] 여어시 [illegible]

[illegible]

疑問의殺人

갈에마저죽은사례

혐의순사구속취료

[illegible]

京義長湍以北은

아모고장이업는모양이다

경성우편국장(京城郵便局長)의통보 [illegible] 평양(平壤)방면의 [illegible] 장단(長湍)이 [illegible] 북의선로는 [illegible] 장이업는듯함으로 방금 도사중이더라

二十三日午後

京義線開通?

(텰도국발표)경의선문산(京義線汶山)과장단(長湍)사이에잇는림진강(臨津江) 압마세리천(沙世里川) 진흥의 축뎨(築堤)약일마일이 류실되엇음으로 목하복구공사중인데 [illegible] 이십삼일 오후비시에는 복구될터이더라

鐵道各線

◇京城平壤間 = 鐵道電話一線만開通이나不完全하다

◇元山、金谷間 = 營業을開始할때마다

◇京城、金谷間 = 復舊工事中

南朝鮮과日本에

開通된電信線

경성부근은 [illegible]

십구일 아침부터 개통된 선신선(電信線)은 다음과갓다

京城平壤間電信線 一囘線 三浪津 [illegible] 東萊川、[illegible] 及永登浦仁川間

면신선은원산을도라경력 다(십구일오후네시대신국발표)

평양방면의 면신은 화차(鐵信號)이 개통되는동시에 경성신의주선(京城新義州線)에의하야 신의주(新義州)에 [illegible] 원산송강선(元山松江線)에의하야 원산 동신(東信)[illegible] 지금 동방면을 경유시키는중이

漂流된二百三十名

공병대의활동으로무사구조

왕십리(往十里)에서 배 가운데 피난한 이백삼십명은 나무가 나더오는것을공병대(工兵)가 자 [illegible] 에배를매고잇던중 증수로 인하야 한강리(漢江里)에 [illegible] 발견하고 구조하엿다더라

淨潔池堤防決潰

鷺梁津仁川水道

인천도음료수곤대공황

한강인도교(漢江人道橋)저편으로 [illegible] 진(鷺梁津)에잇는 인천수도 수원디 정류지(淨潔池)의 인천수도(仁川水道) 淨潔池提防)이 문허저바림 [illegible] 인천도음료수에 대공황이 생기는데 [illegible] 나들이 [illegible]

水道復舊工事極難

공사는미구에착수하게될듯

지금처럼 감수가되면 이십일부터는 수도(水道)복구공사에착수하게될는지도모르나로량진(鷺梁津)방면한강송수관(送水管)아래 [illegible] 의복구공사 [illegible] 가용이치안흘터인데 수원대(水源地)에서 [illegible] 속에잠겨잇고 [illegible] 와잇슴으로 복구공사를 난하리라더라

二十日밤에는

電氣드러올듯

경성마포발뎐소(京城麻浦發電所)에서는 배수용(排水用) [illegible] 발생식하기위하야 [illegible] [illegible] 이십일에는 드디어 [illegible] 에도 대개 [illegible] 에는 배수에지장이업게되어 [illegible] 고장이업는 [illegible] 시에는 [illegible] (경성)에 전등을 켜게 되리라더라(대신국발표)